

## 제17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개최결과 보고

### 1. 회의 개요

※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00년 1회 회의(일본 도야마현) 이후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면서, 양국 지역간 산업협력 발판을 마련  
- 17년간 한국 1,120명, 일본 1,685명 합계 2,805명이 참가

- 1) 목적 : 한·일(호쿠리쿠) 지역 간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 확대  
- 한국 동해안 4개지역과 일본 호쿠리쿠(北陸) 3개지역의 지역간 교류협력을 통해 자본·기술·인재등 서로 부족한 부분을 상호보완하고,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
- 2) 일시 : '16. 8.30(화)~9.2(금), 3박 4일 \* 본회의 : 8.31(수)
- 3) 장소 :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 다이이치호텔
- 4) 참석자 : 양국 정부대표(韓 산업부, 日 중부경제산업국)·기업 등 총 228명  
- 우리측 :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한일경제협회, KOTRA 나고야무역관, 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 강원무역창업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주)화인, 대성이노텍 등 기업관계자 60명  
- 일본측 :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이시카와·도야마·후쿠이현, 호쿠리쿠 경제연합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JETRO·후쿠이·도야마·이시카와현상공회의소연합회, 호쿠리쿠전력, 미쓰비시상사 등 기업 관계자 168명

### 2. 주요 성과

- ☐ (회의)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 관계 첫걸음의 구축'을 테마로, 한일 하나의 경제권 공감대 형성 및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벤치마킹(산업진흥·고령화·관광), 의료 클러스터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한일 경제의 긴밀화에 기여  
- 산업경쟁력강화 정책·고령화 시책 공유, 대한투자유치 설명, 의료 클러스터 협력(원주-호쿠리쿠·센다이), 고령자 요양사업 투자유치(훗토리허빌리시스템) 등
- ☐ (상담회) 호쿠리쿠 3현의 세어 TOP 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 및 한국청년인재채용 홍보로 일본시장 개척 및 해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한국 23개사, 일본 15개사 총 38사 50건 상담실시(상담금액 69만달러)  
\* 제1회 회의 개최당시인 2000년 대비 양국 무역규모는 약 2.8배가 성장  
'00년 543억엔 → '15년 1,539억엔(도야마·이시카와·후쿠이 3개현)  
- 호쿠리쿠지역 기업 초청, 한국청년 취업상담회 개최 추진(10/28, 서울)

## 1) 환동해권 4개지역과 호쿠리쿠 3현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한·일 하나의 경제권 구축의 공감대 형성

- 도야마현 지사 예방, 경제교류회의, 지자체·의료클러스터간 교류회,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호쿠리쿠 관계기관·기업과의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세계적으로 큰 흐름이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는 가운데, 대외지향적 성장을 추구하는 한일 양국은 정책공조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여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
- \* 한일이 각각의 비교우위를 살리고 인적·물적 경영자원을 자연스럽게 공유함으로써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통해 해법을 모색

## 2) 한일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공유 및 상호 윈윈하는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제안

-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 관계 첫 걸음의 구축’을 테마로 하여 세미나 형식의 전체회의, 지자체 분과회·의료클러스터 분과회로 나누어 회의 개최
- 지역이 중심이 된 산업진흥정책과 고령화 대책을 주제로 하여, 우리나라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지역별 핵심 중추 사업 지원) 및 호쿠리쿠 산업경쟁력 강화전략(생명과학·고기능 신소재 관련 산업 육성, 호쿠리쿠 경제권 구축, 인바운드 관광 육성)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지방정부의 공통 과제로서 고령화에 대한 각 지자체의 정책 공유

## 3) 호쿠리쿠 3현의 세어 TOP 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 및 한국 청년인재채용 홍보로 일본시장 개척 및 해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한일 기업간 교류 촉진을 위해 일본 호쿠리쿠 세어 TOP 100대 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
- \* 한국 23개사, 일본 15개사 총 38개사 50건 상담실시(상담금액 : 69만 달러)
- 현우정밀 : 제이버스주식회사에서 10월 중 방한하여 구체적으로 추가협업의 예정
- 선호식품 : (주)호쿠친에서 반건조 오징어 10톤의 수입을 희망 - 재고확인 및 단가 재협상 예정
- 동천테크 : 후지쯔 자회사인 (주)PFU에서, 스캐너 분해용 세척제 견적 요청
- 한독정공 : 산업시찰 시에 만난 나카무라도메정밀공업에서 방한하여, 9월 9일 (금) 한독정공의 공장 방문 예정
- 한국의 청년실업 해소 및 일본기업의 우수인재 채용 등 상호 Win-Win협력을 통한 양국 간 인적 네트워크 및 동반자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일본 호쿠리쿠지역 기업 초청, 한국청년 취업상담회 개최 추진(10/28, 서울)

- 4)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호쿠리쿠라이프사이언스클러스터, 지식과 의료기기창업 미야기현에리어 간에 아시아 시장 공동진출을 향한 한일 의료클러스터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식과 의료기기창업 미야기현 에리어에서 강원의료기기대전(GMES2016)에 대한 출품 검토
  -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호쿠리쿠 라이프사이언스클러스터의 제휴는 하나라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제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색
  - 지식과 의료기기창업 미야기현에리어 시즈 중에서 청각 재활 지원 시스템 개발 등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등에 대해 소개 요청
  - 이시카와 현에는 의료 기기로 연계할 만한 기업이 많으므로, 호쿠리쿠 라이프사이언스 클러스터에서 이시카와현 철공기전 협회 의료기기연구회 참가기업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활동을 소개
    - 11월 25일~26일 후쿠시마 현에서 열리는 "메디컬 크리에이션 후쿠시마"에 원주측과 이시카와현 철공기전협회가 출품할 예정이므로, 행사장에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측과 이시카와현 철공기전협회측이 미팅하는 것에 대해 검토

### 3. 종합평가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후 새로운 5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향후 50년도 지역 간 협력·산업 간 융합으로 한일이 공동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유익한 회의가 되었음
  - 지자체간 교류 세션을 신설하여 한일 공통의 과제(인구감소, 산업육성, 지역인재의 정착, 관광활성화, 고령화 대책 등)에 대한 정책공유·우수 사례 벤치마킹 및 의료 클러스터간 네트워크 구축
- 지난 17년간 총 2,805명(한국 1,120명, 일본 1,685명)에 이르는 지자체·경제단체·기업 관계자 등이 호쿠리쿠 회의에 참가하여 다양한 채널의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제1회 회의 개최당시인 2000년 대비 양국 무역규모가 약 2.8배 성장하는데 기여
  - (교역규모) '00년 543억엔 → '15년 1,539억엔(도야마·이시카와·후쿠이현)
  - (대한투자) 호쿠리쿠(北陸) 기업의 2012년까지 대한투자 건수는 총 24건으로 호쿠리쿠 지역의 해외진출건수 (851건)의 2.8%를 차지

- 호쿠리쿠 지역경제는 일본 경제 전체에서 3% 전후를 차지하며, 부품 등 중간재의 제조·공급능력이 높고 가공기술이 뛰어난 기업이 많이 집적해 있는 지역으로,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양국의 인적·물적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공동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파트너 지역으로서 매우 중요함
- YKK(세계적인 지퍼생산기업), 릿첼(유아·원예·가정용품·플라스틱 고도기술 보유기업), 고마츠정련(우량섬유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전개)의 경우는 ‘초우량 기업’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대표적 기업사례로서, 한국 대표단에 많은 참고가 되었음

#### 4. 향후 후속조치 사항

- 2017년 제18회 차기 회의(경북)는 한일이 동반성장·공동번영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지자체·경제단체·기업 간 협력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 편성
- 2017년 제18회 차기 회의(경북)는 한일이 동반성장·공동번영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지자체·경제단체·기업 간 협력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편성
  - 한일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미나+상담회 프로그램 편성
    - 상담회·전시회 기간 개최, 공장견학, 기업 PR 세미나(상품·신기술)
  - 호쿠리쿠 세어톱 100대 기업과의 지속적인 매칭, 교류 추진
    - 기계금속, 전기·전자, 섬유, 화학, 요업·유리, 플라스틱, 기타
  - 일본기업의 교류희망 수요조사,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 상품교역, 투자, 기술협력, 제3국 협력, 연수, 인재교류 등
  - 지자체 및 지역상공회의소·단체간 논의 세션 검토
    - 경제정책 공유 →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지역이 주체)
  - 일본기업 취업상담회 수요조사 및 채용상담회 개최 추진
    - 호쿠리쿠 지역 인재매칭 상담회

## 〈참고1〉 한·일[北陸]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발표내용

기관·기업명	제언 내용
(전체회의)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관계 첫걸음의 구축방안 논의
강릉원주대학교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산업정책 소개 - 신성장동력 분야 R&D지원, 지역산업(주력산업분야) 진흥 계획
(주)화인	한일 양국 기업의 협력 사례 및 향후 협력방안 제언 - 일본기업의 기술력·장인정신에 한국기업의 신속한 의사 결정과 강력한 매니지먼트 및 현장 추진력을 결합하여 경쟁력을 강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을 통한 한일 경제교류 확대 제언 - ICT융복합, 의료분야, 수송분야 등 글로벌 산업클러스터 유치
중부경제산업국	호쿠리쿠 지역 경제현황과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소개 - 일본의 4대 성장전략, 생명과학·고기능 신소재산업 육성, 호쿠리쿠 경제권 구축, 인바운드 관광 육성 계획
도야마대학	한국인 관광객의 도야마(富山) 유치 전략 - Wi-Fi 확대, 면세절차, 신용카드 사용, 2차 교통의 충실화
훗토리허빌리 시스템즈	일본 최신예의 고령자 요양사업을 한국 전개 제언 - 최첨단 간병 서비스의 한국 진출, 간병 리더 육성
도야마대학대학원	ICT를 이용한 응급, 재해의료 트레이닝 시스템의 개발과 국제화 제언 -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국제표준의 응급, 재해의료의 개발, 응급의료 및 재해시 환자분류·병원이송 시스템의 일원화
(지자체 분과)	지자체가 중심이 된 산업진흥 성공사례·고령화 대책 논의
대구광역시	①창조경제를 향한 대구의 시책 소개 - 물산업 등 청정에너지 선도 도시 구축, 국가의료산업 허브 조성, 사물인터넷 Test-Bed구축 ②대구광역시 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응 - 노인 취업·창업지원, 일과 가정양립의 사회 환경조성, 가족친화 경영 기업환경 조성, 저출산 해소 추진을 통한 선순환 사회 구조
울산광역시	①울산광역시 규제개혁 사례 소개 - 산업단지 중심의 기업연계 현장 애로사항 등 규제과제 발굴 개선 ②고령사회정책 - 시니어클럽운영 등을 통한 일자리 제공,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쉼터 운영, 노인시설 및 여가활동 지원
강원도	①사회적 기업을 통한 강원도의 산업진흥정책 소개 -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마을 기업 재정지원, 교육, 컨설팅, 홍보, 판로확대 지원),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친환경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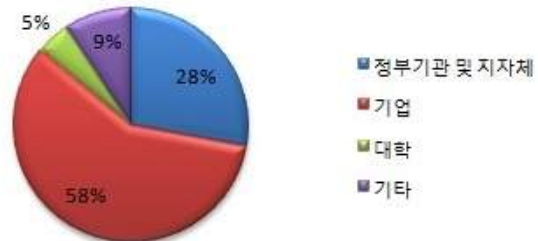
	②강원도 고령친화정책 - 일자리 보조금지원 사업, 자살예방 생명사랑·마음나눔공동체사업,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 농촌인력지원센터 시범사업
경상북도	①대한민국의 중심! 경상북도 소개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NEAR) 소개, 경상북도의 투자환경, 산업지원 사례(경주세계문화엑스포,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②할매 할배의 날이 오면(매월 마지막 토요일 손주가 조부모를 방문) - 가족공동체 회복을 통해 노인, 청소년, 가정 문제의 근본을 치유
도야마현	①도야마현의 산업과 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정책 소개 - 전자부품·기계·금속·화학공업 집적, 해외 비즈니스 서포터데스크 설치 ②도야마현의 특색 있는 고령자 복지 정책 - 도야마형(型) 데이 서비스(모두가 함께 지역에서 생활을 중시하는 지형밀착형 서비스)
후쿠이현	①후쿠이현의 산업진흥책 소개 - 후쿠이 오픈이노베이션 추진기구(기업의 제품제조 지원), 우수 아이디어 표창 ②후쿠이현 고령자 등의 현황과 정책 - 의료와 요양보호를 연계한 24시간 재택 케어시스템의 정비 및 의료·요양보호분야의 산업 창출 지원
이시카와현	①가나자와항 항만 물류와 크루즈 유치 소개 - '14년 화물량 사상최고기록(한국21%), 가나자와항 크루즈관광 유치 ②이시카와 현의 치매 정책의 실시 - 치매 초기 집중 지원팀 운영,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한 재택 생활을 지원하는 지역 만들기
(의료클러스터 분과)	한일 의료기기 산업의 현황 및 한일협력방안
(재)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① GMES(강원의료기기대전) 소개 ② ICT, 빅데이터 분석 등에 관하여 향후 협력 희망 원 ③ 한국에서 원격진료가 인정되면 협력 분야가 많아질 것 - 일본에서는 2015년 8월부터 원격진료 가능
호쿠리쿠 라이프 사이언스 클러스터	① 문부과학성 3기 사업으로 호쿠리쿠지역에 라이프 사이언스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 전개 - 대학등의 연구실에 기업에서 연구자를 초빙하여 실용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실시 중 ② 지식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매칭 등을 통한 대학의 연구개발과 기업의 사업화, 해외 전개 지원 중
지식과 의료기기 창생 미야기현에리어	① 토호쿠대학의 연구 시즈를 이용하여, 의료기기와 부품의 제품화를 통해 공업생산액과 고용의 확대 도모 - 특히,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많으므로, 의료기기분야의 전개가 가능한 기술을 가진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중 ② 의료기기의 거점인 후쿠시마현과의 제휴와 동남아시아, 유럽 등 해외에 대한 전개를 도모하고 있음 - 가을에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방문하여 관련 협의 예정

## 〈참고2〉 앙케이트 조사 결과

### 가. 회의 앙케이트 조사 결과

#### 문1) 참가자 기관 유형

1. 정부기관 및 지자체	12	28%
2. 기업	25	58%
3. 대학	2	5%
4. 기타	4	9%



#### 문2) 회의 참가 목적

1.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18	29%
2. 비즈니스 찬스 모색	25	41%
3. 시장정보교환	9	15%
4. 양국 지자체간 협력사업 개발	6	10%
5. 기타(투자유치 활동, 상담 지원 등)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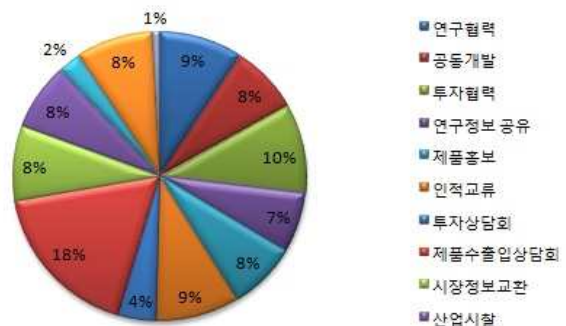
#### 문3) 기대하는 회의 성과

1. 네트워크·파트너십 구축	26	31%
2. 투자 유치 확보	4	5%
3. 사업홍보	9	11%
4. 교류협력 강화	18	22%
5. 신산업에 대한 정보습득	17	21%
6. 미래전략 수립	7	8%
7. 기타(거래처 확보)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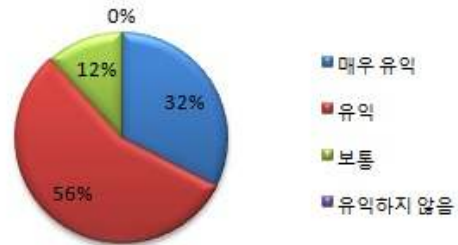
#### 문4) 한일 간 경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

1. 연구협력	11	9%
2. 공동개발	9	8%
3. 투자협력	12	10%
4. 연구정보공유	8	7%
5. 제품홍보	9	8%
6. 인적교류	11	9%
7. 투자상담회	5	4%
8. 제품수출입 상담회	21	18%
9. 시장정보교환	10	8%
10. 산업시찰	9	8%
11. 업종별 D/B구축	3	2%
12. 업종별 클러스터간 교류	10	8%
13. 기타(민간교류 강화)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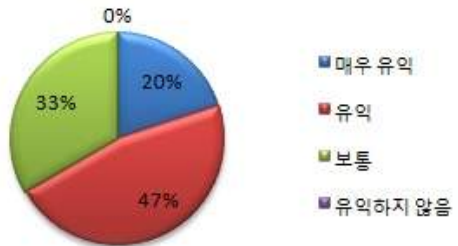
문5) 전체 회의 발표 내용(산업정책/협력사례) 유익도

1. 매우 유익	14	32%
2. 유익	24	56%
3. 보통	5	12%
4. 유익하지 않았음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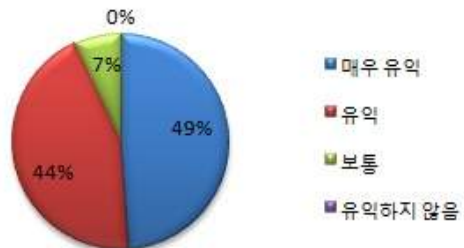
문6) 지자체 분과회 발표 내용 유익도

1. 매우 유익	6	20%
2. 유익	14	47%
3. 보통	10	33%
4. 유익하지 않았음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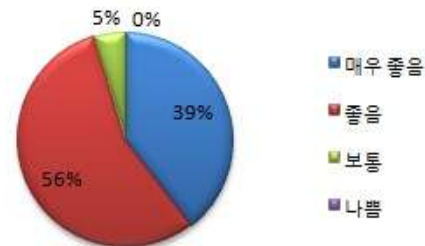
문7) 산업시찰 프로그램 유익도

1. 매우 유익	21	49%
2. 유익	19	44%
3. 보통	3	7%
4. 유익하지 않았음	0	0%



문8) 제17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1. 매우 좋았다	17	39%
2. 좋았다	24	56%
3. 보통이다	2	5%
4. 나빴다	0	0%



■ 좋았던 이유

- 업체 방문에서 일본 기업들의 축적된 깊이 있는 기술의 단면을 보고 느낀 점이 많았음
- 호쿠리쿠 경제·산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지식 등을 획득
- 산업, 생산현황에 대한 정보습득, 미래지향적 생각에 대한 대응 방안모색
- 최적화된 동선, 일정 등이 좋았음.
- 사전준비가 잘 되어 만족할만한 행사였음
- 새로운 사업방향을 찾는 계기가 됐음

- 일본의 다양한 기업들을 방문하여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었음
- 산업 시찰 시에는 기업의 협력 하에 매우 상세한 회사 소개와 공동 협력, 정보 교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
- 업체에서 자사제품 장점 홍보 및 개발 상황을 파악하여 사업계획수립에 도움
- 새로운 가능성 있는 업체와의 주선으로 인해 신규거래처 확보 가능성
- 다양한 분야의 공장견학,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 산업시찰(관리 및 공정상태 매우 잘 되어있는 모습보고 당사 적용예정)
- 일본 측 기업 동향 파악 할 수 있어서 좋았음
- 일본 내 지자체와 1:1교류기회가 있어서 좋았음
- 경제교류와 자치단체교류가 함께 이루어져 시너지효과 발생
- 선진국 일본의 경제·산업·행정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 습득과 이해 강화
-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으로서 고령사회 정책방향을 엿볼 수 있었음

#### ■ 나뉘었던 이유

- 지자체 교류시간에는 사전정보가 부족, 지자체별 참석자의 명단과 협력할만한 내용을 사전에 교환한 후 만남이 이루어지길 희망함
- 미팅시간이 짧았음
- 지방자치단체 발표시간이 너무 짧음 (8분~10분 길이의 발표 고려)

## 나. 상담회 앙케이트 조사 결과

한국측 참가기업	일본측 참가기업	상담건수	상담금액
23개사	15개사	50건	69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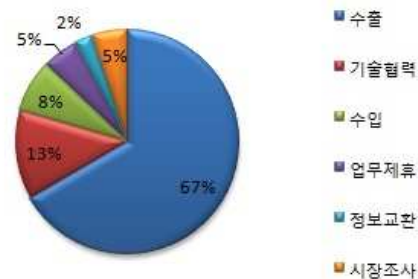
#### ■ 기업별 상담 내용

기업명	상 담 내 용
(주)제일테크	다이캐스팅,프레스물 수출상담
한독정공	컨베이어 제작 기계부품류 수출 및 기술협력상담
잘만정공(주)	연삭기 수입상담
인터내셔널 플랫 케이블	FLAT CABLE MACHINE 수출 및 기술협력 상담
GT INC	버스 창틀고무 수출상담
선호식품	건조오징어 수출상담
지제이테크(주)	기계부품, JIG Ass'y 수출상담
	정밀가공부품 수출상담
창성	숙취음료 명쾌, 기능성음료, 홍삼녹용, 생인삼
	비누, 홍삼커피 수출 상담
(주)SMG	섬유기계용 기어, 공작기계용 기어 수출상담
	공작기계용 기어 수출 및 정보교환 상담
ASTM ENGINEERING	방직기계부품의 절삭가공관련, 공작기계부품 가공관련 수출상담
	절삭가공부품 수출상담

기업명	상 담 내 용
(주)동천테크	스캐너 리워크 클리너(Scanner Rework Cleaner)업무제휴상담
	DEMI화장품
SKtechwin	반도체장비관련 수입 및 기술협력상담
	CFRP자동식형시스템 외(自動式形System)
대명이엔지	정밀공작기계가공부품 수출상담
	전기 장비 및 로봇 부품 수출상담
성호기술	기계가공품(기계부품) 수출상담
	AL(알루미늄)생산품 관련 수출 및 업무제휴상담
내외정밀	롤러 수출 상담
	샤프트 외 정밀 부품 수출 상담
바다본	전복장조림(부드러운맛, 매운맛, 훈제맛, 스테이크맛) 수출상담
(주)청해에스엔디	조미김 수출상담
강원무역창업연구원	화장품 수출 및 시장조사 상담
한일정밀	정밀부품 수출 상담
대성이노텍	금형제작,개발 및 양산기술, 전기자동차 부품, 보일러 부품 수출
한나무역	프레스 금형, 몰드 금형 수출
D.S.엔지니어링	정밀주조품, MIM, 다이캐스팅, 주물(FC, SUS)품 등 수출
현우정밀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선박엔진부품, 방산품, 일반산업기계부품

## ■ 상담목적

수출	26	67%
기술협력	5	13%
수입	3	8%
업무제휴	2	5%
정보교환	1	2%
시장조사	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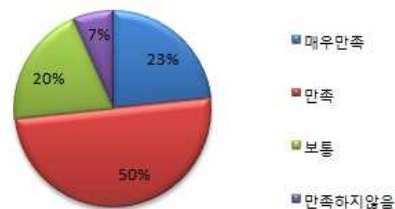
## ■ 향후 추진계획

가능성높음	15	47%
네트워크지속유지,발전	11	34%
거래성립	1	3%
가능성없음	5	16%



## ■ 상담 만족도

매우만족	7	23%
만족	15	50%
보통	6	20%
만족하지 않음	2	7%



## 한국경제

입력: 2016-08-26 07:03:36 / 수정: 2016-08-26 07:03:36

# 제17회 한일 호쿠리쿠 경제교류회, 이달 30일부터 일본 도야마에서 개최

한일 양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인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제17회 한일 호쿠리쿠 경제교류회가 8월 30일부터 3박4일 간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시 도야마다이이치호텔에서 개최된다. 대구·울산·강원·경북 지역과 일본 중부 호쿠리쿠 지역의 지자체와 경제단체, 기업 등이 참여해 협력 방안을 찾는 자리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관계 첫걸음의 구축'을 주제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회의와 비즈니스 상담, 산업시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30일 오후 이시이 다카카즈 도야마현 지사와의 면담, 환영리셉션이 예정돼 있다. 31일 전체회의에서 양국의 지역 산업정책 발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환경 설명회가 열린다. 한일 지방자치단체간 분과회, 기업 상담회, 의료 클러스터 미팅 등이 이어진다.

호쿠리쿠는 일본 중부지방에서 동해와 접하는 도야마현, 니가타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을 가리킨다. 니가타현을 제외한 3개 현이 경제교류회에 참가한다.

한일경제협회는 "호쿠리쿠지역의 산업은 뛰어난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부품 등 중간재의 제조·공급 능력이 높고 해상 교류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며 "한국 동해안 지역과 업종·지역간 교류를 통해 자본·기술·인재 분야를 서로 보완해 공동의 경제권 형성을 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중부경제산업국이 공동 주최하고, 한일경제협회와 호쿠리쿠 경제연합회가 주관한다. 한국에서 이민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관과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해당 지자체와 관련 기관 임직원 등 60명이 참석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mailto:open@hankyung.com)

## 한일 지자체·경제인,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한다

• 기사입력 2016/08/26 06:35 송고



지난해 8월 울산시 남구 롯데호텔에서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 공동 번영의 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제16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 회의가 열렸다. [울산시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8월30~9월2일 일본 도야마市에서 양국 경제교류회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일 양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인이 머리를 맞댄다.

26일 한일경제협회(회장 김운 삼양홀딩스 대표이사)에 따르면 대구·울산·강원·경북 지역과 일본 중부 호쿠리쿠 지역의 지자체와 경제단체, 기업 등이 상호 협력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제17회 한일 호쿠리쿠 경제교류회'가 8월 30일부터 3박 4일 간 일본 도야마(富山)현 도야마시 도야마다이이치호텔에서 개최된다.

호쿠리쿠는 일본 중부지방 가운데 동해와 접하는 도야마현, 니가타(新潟)현, 이시카와(石川)현, 후쿠이(福井)현을 가리키며 이 중 니가타현을 제외한 3개 현이 경제교류회에 참가한다.

30일 오후 이시이 다카카즈(石井 隆一) 도야마현 지사와의 면담, 환영리셉션이 마련되고 31일 전체회의에서는 양국의 지역 산업정책 발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환경 설명회가 열린다. 이후 사례발표와 토론회, 한일 지방자치단체 간 분과회, 기업 상담회, 의료 클러스터 미팅 등이 이어진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중부경제산업국이 공동 주최하고 한일경제협회와 호쿠리쿠(北陸) 경제연합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이민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관과 이종운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해당 지자체와 관련 기관 임직원 등 60명이 참석한다.

일본 측에서는 이시이 도야마현 지사, 하타노 아츠히코(波多野 淳彦)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장, 규와 스스무(久和 進) 호쿠리쿠 경제연합회 회장, 지자체와 기관, 기업체 관계자 등 143명이 참가한다.

이 교류회는 1999년 양국 산업 장관회의에서 지방간 경제교류 확대 방안으로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과 호쿠리쿠 3개 지역 간 교류를 합의한 이래 2000년부터 양국에서 매년 번갈아 열리고 있다.

[wakaru@yna.co.kr](mailto:wakar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6 06:35 송고



## 北陸3県と韓国4自治体会議

## 富山で振興策を報告

北陸三県と、韓国の日本海側四自治体が昨午富山で、経済連携強化を目指す交流会議が二十一日、富山市内のホテルであり、各自自治体が産業振興の取り組みを紹介した。

富山県は企業の海外販路拡大のため、製造業や製菓業などを対象にした国際ものづくり見本市や、アジア各国のバイヤーとの商談会

を開催を進めていることを説明。石川県は金沢港を日本海周遊クルーズの拠点とする取り組み、福井県は眼鏡や繊維など地場産業の振興策をそれぞれ発表した。

韓国側からは南山広域市が、規制緩和を進めたことで産業団地に企業が工場用地を確保しやすくなり、造船業の競争力強化などの成果があったと報告。慶尚北



自治体による産業振興の取り組みを発表する参加者ら＝富山市内で

道は医療観光促進に向け、拠点病院の育成や支援体制の構築に力を入れている現状に述べた。

交流会では、北陸の経済団体や大学でつくる北陸環

日本海経済交流促進協議会などが二〇〇〇年から毎年開催し、今回は両国から約二百三十人が参加。初の取り組みとして、北陸と韓国の製造業や食品産業など三十八社が商談を行う企業間マッチングも実施した。

(杉原雄介)

## 北陸と韓国の

## 38社が商談会

## 富山の交流会最終日

北陸経済連合会、北陸環日本海経済交流促進協議会（北陸AJEC）の「北陸（日本）・韓国経済交流会

議」は最終日の31日、富山市の富山第一ホテルで全体会議と分科会を開いた。初めに実施したビジネス分科会の商談会では、製造業、食品メーカーなど計38社が50件の商談を交わした。

商談会には日本15社、韓国23社が参加し、自動車関連部品の受注や加工食品の

輸出などの可能性を探った。北陸三県と韓国の自治体関係者が参加した自治体分科会も開かれ、産業振興や高齢化対策の施策を紹介した。

交流会には230人が出席した。韓国側関係者は1日に北陸の企業を視察し、2日に帰国する。

## 日韓連携へ意見交換

## 富山で北陸・韓国経済会議



北陸と韓国の行政や企業関係者が取り組みを発表した全体会議＝富山第一ホテル

北陸と韓国の地域間交流拡大を目指す「北陸（日本）・韓国経済交流会議」は31日、富山市の富山第一ホテルで全体会議を開いた。両地域の企業や

行政関係者が相互理解を深めようと発表を行ったほか、分科会として日韓企業による商談会や自治体の意見交換も行

い、官民合わせて約230人が連携強化に取り組んだ。

全体会議では中部経済産業局の担当者が北陸経済の現状を説明。富山大の今村弘子教授は県内での韓国人観光客の動向を紹介した。韓国側は政府の産業強化策や日韓企業の連携事例を発表した。

分科会では商談約50件のほか、産業振興や高齢化問題、若い人材の流出に対する日韓の自治体の取り組みについて意見交換した。

交流会は北陸経済連合会と北陸環日本海経済交流促進協議会などが二〇〇〇年から開いている。全体会議の冒頭、久和進北陸連合会長と韓日経済協会の李鍾九副会長があいさつした。